

입소문 나면 대박... '웹드라마 광고'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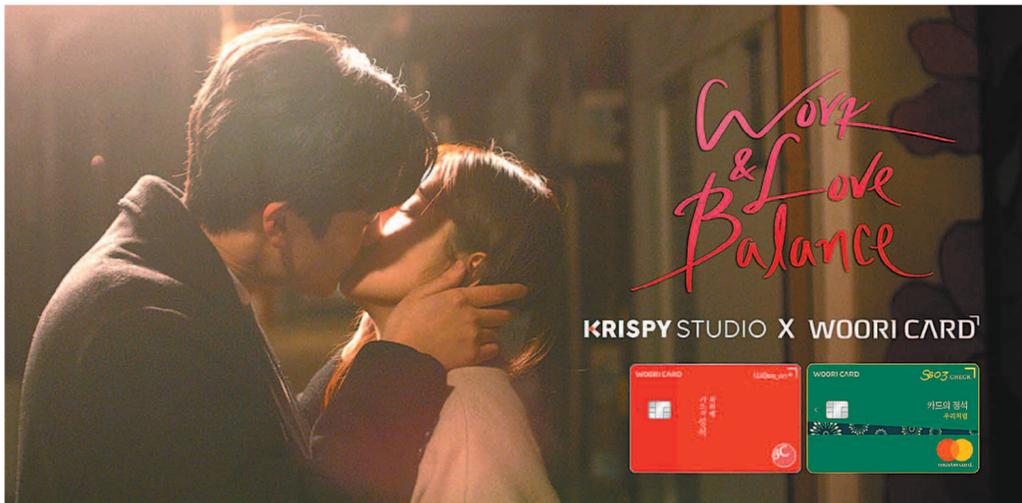
금융업계 웹드라마 광고 적극 활용
적은 비용 대비 큰 광고 효과 장점
지상파 드라마에 비해 제약도 적어

재미와 스토리로 무장한 웹드라마가 금융업계의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웹드라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플랫폼에 맞춰 제작하는 드라마다. 짧은 방영시간과 간결한 전개 때문에 '스넥드라마'라고도 불린다. 기존 TV 드라마에 비해 출연진이나 제작비가 훨씬 소규모이지만, 입소문을 한번 타면 TV 드라마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품을 작품에 노출하거나 드라마 소재로 활용하는데 지상파나 케이블TV 드라마에 비해 제약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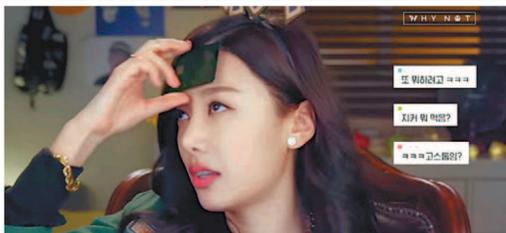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높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니 금융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고민하는 카드업계가 웹드라마의 화제성과 광고매체로서의 '높은 가성비'에 주목했다.

KB국민카드는 콘텐츠 업체 72초TV와 함께 웹드라마 '클라이맥스 전문가'를 최근 공개했다. 빠른 전개에 내레이션을 입힌 독특한 구성이 특징이다. 현대카드도 웹드라마 '김팀장의 이중생활'을 선보였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뷰티 유튜브버로 활동하는 김 팀장의 에피소드 속에 현대카드의 상품인 '그린카드'를 노출했다.

최근에는 웹드라마의 한계에서 벗어나 일반 드라마처럼 긴 호흡의 작품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카드가 콘텐츠 업체 크리스피



우리카드의 웹드라마 '워크 앤 러브 밸런스', 현대카드의 웹드라마 '김팀장의 이중생활', 신한금융그룹의 웹드라마 '엄마의 당부'(위부터 시계 방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웹드라마 광고가 주목받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웹드라마 '엄마의 당부'(위부터 시계 방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웹드라마 광고가 주목받고 있다.

스튜디오와 함께 만든 웹드라마 '워크 앤 러브 밸런스'는 회당 15~20분 분량으로 총 3편으로 구성했다. 직장인의 이별과 사랑의 사실적인 설정 속에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극중 여 주인공 직업을 우리카드의 카드 디자이너로 설정해 자연스럽게 '카드의 정석 위비온플러스'를 노출했다.

은행업계도 웹드라마 스타일의 광고를 만들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엄마의 당부'는 버스를 타고 떠나는 딸에게 어머니가 차창 밖에서 울며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플러스를 연거푸 외치는 내용이다.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는 광고 문구가 인상적이다.

이제는 모바일 기기가 문화·경제 활동의 중심 하드웨어인데다 소비자의 광고 기피 경향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웹드라마 광고는 이용시간과 제작비 절감, 편리한 모바일 접근성, 신선한 소재 등 장점이 뚜렷해 금융기업들 사이에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jjay@donga.com

KEB하나, 임정 100주년 캠페인



KEB하나은행이 4월11일까지 '가슴 벅찬 그 이름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국민 캠페인(사진)을 진행한다. 고객이 모바일 앱 1Q뱅크에 신규 가입하면 가입자 수당 1000원, 대국민 캠페인 SNS게시물의 좋아요 클릭 수당 500원 등 총 4억 원을 적립해 기부한다. 또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통장을 특별 제작한다.

현대카드, 앱카드 실시간 발급

현대카드가 18일 스마트폰 앱으로 카드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 실시간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 카드 신청부터 발급, 이용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서비스다. 본인 확인을 위한 상담원 연결과 전화 심사를 디지털화해 카드 신청 후 1분 이내에 앱카드 발급이 가능, 온·오프라인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다. 정정욱 기자

"비은행 잡아라"...하나금융, 롯데카드 인수 작전

7월 '코픽스' 손질...수익 정체 예상
비은행 계열사 수익으로 만회 계획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 부문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국이 7월1일부터 대출이자 인하 유도를 위해 은행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손질하는 등 수익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

으로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롯데카드 인수 참여에 나섰다. 이미 하나카드를 갖고 있는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하면 업계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신용판매(개인·법인·체크카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롯데카드 9.57%, 하나카드 8.92%로 합치면 18.49%로 2배가 된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22.73%)에 이어 KB국민카드(18.31%), 삼성카드(17.08%) 등을

제치고 단번에 2위가 된다. 롯데·하나카드의 중복 고객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점유율은 단순 합계보다 낮겠지만 하위권에 머물던 하나카드로서는 단숨에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마친 우리금융도 비은행 부문 인수에 적극적이다. 1월 13일 열린 지주사 출범식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연초부터 비은행 부문의 인수·합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산운용사, 부동산 산신탁사,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우선 추진하고, 증

권사 등 규모가 큰 기업은 공동투자 형식으로 인수를 노리고 있다.

롯데캐피탈 인수전에 참여했던 KB금융은 롯데 측이 캐피탈 매각을 잠정 보류하면서 주춤 상태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이 대신 생명보험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추가 매물 물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아시아신탁 등 굵직한 인수건을 일찌감치 마무리 한 신한금융은 한걸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핀테크업체 토스와 손잡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정욱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환상특급!
바이칼호수 환바이칼 열차와
알함섬 5일

5월 20일 출발

마중여행사 02-730-2270

신사 캐주얼 전격출시기획특가전

전품목 1컬러에
39,800원
▶ 주 / 분 / 목 / 주 ◀

초경량 / 고강도의 고급소재와 폼나는 디자인이 만났다!

1 비조 사이즈: 250~275
색상: 네이비 / 브라운



비조장식인 포인트를 주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오래걸어도 편안한 신발.

네이비 브라운

2 드라이빙 사이즈: 250~280
색상: 블랙 / 그레이



수공정프기 돌보이는 고급스러움과 모던한 에디션. 신고백기 편안한 드라이빙슈즈

블랙 그레이

3 버클 사이즈: 250~275
색상: 브라운 / 블랙



컴포트형 천연가죽구두 고급스러움과 편안한 착용감이 어우러지는 버클 신사화입니다.

브라운 블랙

4 보트 사이즈: 250~275
색상: 네이비 / 브라운



3쪽관공형 베이직슈즈 모자이크프로 고급스러움과 편안한 착용감이 들뜨는 슈즈

네이비 브라운

5 레이 사이즈: 250~275mm
색상: 브라운 / 네이비



최신유행 스타일의 고급스러움까지 더함 깔끔한장장이다 캐주얼한복장에도 어울리는신사화입니다.

브라운 네이비

6 모노/쿠션 사이즈: 250~275
색상: 블랙



고무양상니공 천연가죽모공으로 편안하여 쿠션감있는 중장년층 세련된 구두입니다.

쿠션블랙 모노블랙

7 윙탑 사이즈: 250~275
색상: 브라운 / 블랙



천연가죽의 부드러운 터치감 깔끔한 장장에 어울리는 오듀유행 남성슈즈 어느연령이든 멋스러움.

브라운 블랙

8 콤비 사이즈: 250~275
색상: 블랙 / 브라운



최신유행 고프레임의 고급스러운 캐주얼 슈즈로 다양한 패션 잘 어울림.

브라운 * 블랙도 있습니다.

9 스티치 사이즈: 250~275
색상: 브라운/블랙



천연가죽모공으로 애플스피드와 강할, 신고백기 어울림 깔끔한 컴포트스티치 구두 어느 패션이든 잘 어울림.

브라운 블랙

10 힐튼 사이즈: 250~275mm
색상: 블랙 / 네이비



깔끔한 스타일, 안정감있는 슈즈 고급스러운 편안함까지 두루 갖춘 힐튼남성신발

블랙 네이비

택배비 3000원 소비자부담 / 24시간 주문가능 / 단체주문 환영

1899-6540

(농협) 352-1526-2684-03 최용홍 (네네쇼핑) 카드결제가능 / 전국 우체국 택배 3000원 소비자 부담